

가나자와 아트 플랫폼 2008

- 자신들이 사는 장소를 자신들이 만들기 위해 -

「가나자와 아트 플랫폼 2008」은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이 가나자와의 거리를 무대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품을 완성해가는 참가형 전람회입니다. 상점가나 신사, 빈집, 빈빌딩 등을 회장(会場)으로 19 조의 아티스트가 전시를 행합니다. 워크숍 등도 다수 개최. 또한 같은 시기에 가나자와 시내의 갤러리 등에서 개최되는 전시 「K-Plat-exte-nsion」을 제휴기획으로 병행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아트를 통해서 사람이 만나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간에 대화가 생겨나고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중개자가 생깁니다. 가나자와의 거리가 보다 풍부한 장소로 변해갑니다. 이번 가을, 거리의 사람들과 얽혀 펼쳐지는 아트가 가나자와에 넘쳐 납니다.

- 회기 : 2008 년 10 월 4 일(토) → 12 월 7 일(일)
- 폐장일 : 월요일(다만 10/13, 11/3,24 은 개장, 10/14, 11/4,25 은 폐장)
- 개장시간 : 10 시부터 17 시
 - ※ 회기 · 폐장일 · 개장 시간은 각각의 회장(会場)에 따라 다릅니다
- 참가작가 : 국내외의 19 조
- 회장(会場) : 가나자와시 중심 시가지 14 개소
- 문의처 : 076-220-2814, URL: www.kanazawa21.jp/exhibit/k-plat/

티켓(ticket)에 대하여

책자형의 패스포트가 티켓입니다. 회기중의 2일간 유효합니다. 회장(会場)까지의 상세한 지도가 있으며 작가 소개 등의 내용도 충실합니다.

- 일반 : 1,000 엔, 대학생/65 세이상 : 800 엔, 초중고생 : 400 엔
 - ※ 회장 입구에서 패스पोर्ट를 보여 주십시오
 - ※ 무료로 볼 수 있는 회장도 있습니다
 - ※ 도모회(友の会)회원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회장 입구에서 회원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 당일권(패스포트) 취급점 ※ 10 월 4 일 부터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 하토인 가나자와점 · 하토인 히가시쿠치점(모두 JR 가나자와역 구내), 이외 유명 숙박시설

「가나자와 아트 플랫폼 2008」 전람회에 대하여

「가나자와 아트 플랫폼 2008」은 2008년 가을,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가나자와의 거리를 무대로 거행하는 프로젝트형의 전람회입니다.

최근, 많은 아티스트가 미술관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아트 스페이스를 뛰쳐나와, 사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제안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 아티스트는 이러한 의문을 품고, 살아있는 사회를 실천의 장소로써 파악하면서 아트의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아티스트에게는 몇가지의 특징이 보입니다. 표현자로 앞서기 보다는 장소와 기반을 만드는 코디네이터와 같은 입장에 서서, 구조와 상황의 건설로 향하는 것. 또한 협동적이고, 관련되는 사람들과의 이해, 합의, 때로는 역의 반응인 반발 등을 포함한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것. 전람회 등의 형식이나 미술, 건축, 디자인이라고 하는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횡단적으로 표현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 그리고 비일상인 것 보다는 일상이나 장소와의 친화성, 계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 그곳에는 협동성과 현장주의가 우선되어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가나자와 아트 플랫폼 2008」은 이와 같이 사회와 자각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과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가나자와의 거리에 사는 사람들과 아티스트가 협동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 입니다. 「아트 플랫폼」은 문자 그대로 역의 플랫폼을 이미지하여, 그곳에는 아트를 매개로 사람들이 만나거나 정보가 오고 가는 것으로 새로운 사건의 유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회사, 가정, 학교, 지역이라고 하는 사회의 다양한 틀 속에 새로운 우회 도로를 만드는 것. 사람들간에 대화를 창출하여, 도시가 생기있는 활동의 장이 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자와 아트 플랫폼」 — 그것은 모놀로그(독백)를 넘어 사회와의 관계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다이얼로그(대화)를 향하는 자리를 만드는 시도입니다.

「가나자와 아트 플랫폼 2008」은 각기 다른 시점을 가진 4명의 큐레이터에 의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큐레이터는 가나자와라고 하는 장소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대화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작가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자와에서 전람회나 도시조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조직이나 단체, 개인이 「가나자와 아트 플랫폼 2008」을 같은 시기에 전람회나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만약 함께 일원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해 줄 수 있다면, 「가나자와 아트 플랫폼 2008」의 제휴기획으로 고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가나자와 아트 플랫폼 2008」은 프로젝트형의 전람회를 3년마다 계속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에 해당하는 이번에는 「자신들이 사는 장소를 자신들이 만들기 위해」라고 하는 테마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에는 가나자와 거리에 사는 우리가 아티스트와 함께 사회에 관련되어 활동해 나가는 플랫폼을 함께 완성해 가자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친밀한 장소에서 아티스트와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풍부한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나자와 아트 플랫폼 2008」의 목표입니다.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관장 아키토모 유지

정보(Information)

회장(會場)을 둘러보는 방법

본 패스포트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회장(會場)을 둘러봅시다. 유료 회장(會場)에서는 본 패스포트의 책 끝에 있는 스탬프 란에 일지를 찍습니다. 패스포트 체크가 있는 회장은 지도상의 ①⑤⑥⑦⑧⑫⑬. 그 외의 회장(會場)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는 회기중의 2일간 유효. 도모회(友の會) 회원은 회장(會場)입구에서 회원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각종 워크숍이나 관련 이벤트 또는 [K-Plat-extension]의 회장(會場)도 함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없는 회장(會場)이 많기 때문에 도보나 버스, 자전거로 둘러 보실것을 추천합니다. 가나자와역에는 렌탈 자전거도 있습니다. JR 가나자와역 렌탈 자전거(076-261-1721), 호쿠테쓰 렌탈 자전거(076-264-0919)

인포메이션 · 큐브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의 디자인 갤러리가 도모회(友の會)의 멤버에 의한 정보 스페이스로 되어 있어 추천코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정보가 모입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아트 버스

회기중의 토요일축일에 한해 아트 버스가 운행됩니다.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 혼다입구(=21 미), ①가나자와 시민예술촌(=예술촌), ⑫가나자와 미술 공예 대학(=미대)의 3 회장(會場)이 발착지가 되고(11/15 이후는 21 미와 미대의 2 개 회장(會場)만 왕래), 본 패스포트를 지참한 분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합니다. 예술촌에서는 약 30 분, 미대에서는 60 분의 관람시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시간표

10월 4,5,11,12,13,18,19,25,26 일 11월 1,2,3,8,9 일

11월 15,16,22,23,24,29,30 일 12월 6,7 일

21 미	①예술촌	⑫미대	21 미	21 미	⑫미대	21 미
09:45 발	10:15 착/10:45 발		11:15 착	09:45 발	10:05 착/11:05 발	11:25 착
11:15 발		11:35 착/12:35 발	12:55 착	11:25 발	11:45 착/12:45 발	13:05 착
12:55 발	13:25 착/13:55 발		14:25 착	13:05 발	13:25 착/14:25 발	14:45 착
14:25 발		14:45 착/15:45 발	16:05 착	14:45 발	15:05 착/16:05 발	16:25 착

관광 자원봉사 가이드 [마이도상]과 둘러보는 「가나자와 아트 플랫폼 2008」

가나자와 거리를 잘알고 있는 가이드(마이도상)가 일부 회장(會場)을 함께 돌면서 안내 해 줍니다. 10/4(토), 10/19(일), 11/2(일), 11/23(일), 12/7(일)

※ 적은비에는 결행

소요시간 : A:B 코스 함께 2~3 시간, 참가비:무료(패스포트 필요)

A : [유택한 길]코스

10:00 가나자와역 쓰즈키문 분수앞 집합 →④a→⑤→⑥→⑦→⑧→⑨→④b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 해산

B : [미로 가득 고개 둘러보기]코스

12:30 가나자와 미술 공예 대학 집합 →⑫→⑬→⑭a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 해산

신청 · 문의 : 076-220-2814

※ 개최일 2 일전까지는 전화 예약을 해 주십시오

■ K-Plat-extension

「가나자와 아트 플랫폼 2008」 과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뜻을 같이하는 아트 이벤트를 「K-Plat-extension」 이라는 제휴기획으로써 안내합니다. 아무쪼록 병행해서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1. 하치야 가즈히코 《OpenSky》 ~11/9 (日)

하치야 가즈히코는 2003 년부터 [개인적으로 비행 장치를 만든다]라고 하는 <OpenSky>프로젝트를 개시하였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宮崎 駿) 작품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에 등장하는 「메메」라고 불리는 가공의 비행기 디자인을 바탕으로, 갈매기 날개처럼 우아하고 곧게 뻗은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하얀 기체 <M-02>는, 항공 엔지니어 시노헤 사토루(四戸 哲)와 함께 개발하여 현재는 그 최종 단계인 제트 엔진을 탑재하여 비행하는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지, 바다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온갖 장소에는 인간이 정한 경계가 있어, 넓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이란 이미지와는 모순되게 실제로는 하늘도 세세하게 규제되어 분단되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프로젝트의 타이틀인 <OpenSky>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경계를 넘어 만민에게 하늘을 개방한다 라고 하는 [열려라! 하늘]이라는 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OpenSky>라고 하는 하치야의 개인적인 시도에 의해서 어쩌면 가까운 미래, 누구나 자유롭게 하늘을 비행하게 되어 머지않아 사회를 변화시킬 정도의 큰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이트 형제가 일찌기 그랬던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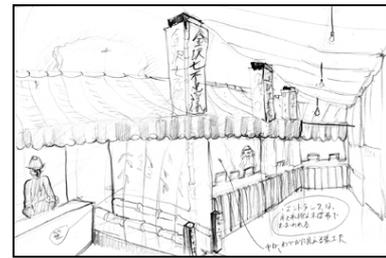
《10 本目 98 cm》 撮影:米倉裕貴

하치야 가즈히코(八谷和彦)

1966 년 사가현에서 태어나 도쿄도 거주. 카메라와 트랜스미터를 사용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상대와 서로 교환 하는 《시청각 교환 머신/ 1993 년》이나 제트엔진이 장착된 스케이트 보드 《에어 보드/1999 년》 등을 대표작으로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디자인과 아트와 기술의 융합을 아트의 장으로 실현하고 있는 점에서 성과나 가능성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평가가 높다. 핑크의 꿈이 메일을 보내는 《Post Pet》의 개발자이기도 하다.

2.오자와 쓰요시 《가나자와 7 대 불가사의》 ~11/30 日)

오자와 쓰요시의 작품을 해독하는 키워드의 하나로 「여행」 혹은 「여행자의 시점」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오자와 쓰요시의 테마도 그러한 시점으로 부터 「가나자와」 를 풀어헤친것 입니다. 타운 가이드로부터 인터넷상의 정보, 향토사와 여러가지의 자료를 훑어보고 스스로가 거리를 걷고, 사람들과 이야기 하면서 가나자와다움을 자아내는 것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선택된것은 가나자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잊고 있거나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관광 가이드에게는 도외시 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나자와 다운 것이며, 「역사적인」 이라고 형용하기에는 너무나 하찮지만 알게되면 바로 미소가 떠오를 것 같은 독특한 과거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남겨진 민요, 전설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전하는 유물이나 가장 일상적인 먹을거리이기도 합니다. 鏡石, ほんとうライス, 弥七の豆鼓太鼓, 七つ橋巡り, 鮎貫の幽霊, 芋堀り 籐五郎, 天狗伝説, 辰巳ダム. 이것들을 가나자와 7 대 불가사의 라고 해서(실제는 그것에 하나를 더해) 작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소는 메이지 40 년에 가나자와 저축 은행으로 건설된 아름다운 일본 건축으로, 현재는 이시카와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오와리초(尾張町) 주민 문화관입니다.



《金沢七不思議》 ©Tusoshi Ozawa and Ota Fine Arts

오자와 쓰요시(小沢剛)

도쿄 예술 대학 재학때부터 풍경속에 자신이 만든 지장보살을 건립하는 《Jzoing /지장보살 건립》을 개시. 1993 년부터 우유상자를 초소형 이동식 갤러리로 한 《가지회랑》이나 《상담예술》, 1999 년에는 가가와(香川)에 일본 미술사의 풍자라고도 할 수 있는 《간장그림 기념관》을 개관. 또한 2007 년에는 도시마 (豊島) 에 불법 투기된 산업 폐기물을 재료로 불상을 제작하여 88 체를 나오시마 (直島) 에 설치한 《스래그 부처 88》 등 다수입니다. 유머를 섞은 작품 스타일은 경묘하고 환경이나 평화 등의 메시지가 자유로운 발상으로 작품화되고 있습니다.

3. 마쓰무라 다이조 《빛의 상자》 11/15(토) ~

빈 상자의 밑을 빼고 트레이싱 페이퍼로 뚜껑을 한 후 미리 필름을 통 모양으로 뭉쳐 상자에 채웁니다. 전면에는形形色색의 셀로판을 좋아하는 대로 붙여 넣는 것 뿐. 그러나 이것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강력한 광원 앞에 비추면 놀랄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상자》가 완성됩니다. 마쓰무라 다이조의 《빛의 상자》를 빛에 비추고 소개하면 어른아이 할 것없이 놀라움의 함성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연치 않게 비가 갠 뒤의 무지개를 발견했을 때와 같습니다. 처음으로 《빛의 상자》를 손에 넣은 사람들은 질리지 않게 빛에 비춰 움직여서 물 들어진 빛의 흔들거림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가을 가나자와시에는 「다마가와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됩니다. 그 탄생을 축하하여 모두가 《빛의 상자》를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같을 지라도 하나하나 다른 표정을 가진 《빛의 상자》는 도서관에 쏟아지는 어린이들에 대한 축하의 빛입니다. 눈에 보이는데도 손에 잡을 수 없는 빛. 《빛의 상자》는 빛 자체의 존재와 특징을 간단한 방법으로 알게해 주는 과학과 예술의 접점에 있는 작품입니다. 뛰어난 놀이의 요소도 있으면서 눈으로 보는 빛이라고 하는 시각 인지의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光の箱》©松村泰三

마쓰무라 다이조(松村泰三)

1964년 아오모리현에서 태어나고 아마가타시 거주. 동북 예술 공과대학 정보 디자인 학과 준교수. 제 18 회 현대 일본 미술전에서 대상을 수상. 《빛의 상자》 등을 만드는 워크숍을 개최. 간단한 구조 이면서도 광학원리나 영상기기의 기본 시스템을 응용하여 보고 만지고, 5감으로 체험하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4. Franck Bragigand 《자연의 요구와 마음에 필요한 것》

다마가와 공원에 있는 오래된 화장실과 우로코마치(鰯)의 가와미타 지장보살의 사당에 칠을 합니다. 이 두 장소는 가나자와의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작가 자신이 결정한 것입니다. 두개의 편성에 대하여 작가는 [화장실과 지장보살은 비슷하지는 않지만 어느것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칠하는 색은 양쪽 공통으로 5 색의 조화를 택하였습니다. Bragigand 는 결코 색으로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장보살의 보존회나 마을 분들의 협력을 구하는 가운데서, 만약 색으로 이해를 얻는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와 완전히 같은 색으로 다시 칠을 한다 해도 상관없다 라고 작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칠을 한다고 하는 행위 자체, 또한 칠하는 것을 필요로 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칠하는것을 통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것에 의식을 기울이는 작품입니다.



《玉川公園のトイレ》

Franck Bragigand

1971년 프랑스 태어남. Besançon 미술학교 졸업. 네덜란드 국립 라이크스 아카데미에서 2년간 체재. 현재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활동. 스스로를 리얼리티 페인터라고 정의하고 오래되서 내버려진 것을 페인트 함으로써 재생하여 그 매력이나 특이성을 이끌어 낸다. 네덜란드 디자인을 리드하는 드록 디자인 오피스 전체도 페인트 하는 등 디자인이나 건축과의 공동제작도 많다.

5. 다카하시 하루키 《한밤중》

「초목도 잠자는 한밤중」. 초목도 모두 잠들어 조용해지는 고요함 속, 어둠속에서 보여 지는 것, 사라져 가는 것이 교차해 집과 마을, 생활의 영위, 모든 것들이 자연 속에 동화되어 갑니다. 낡은 상가 앞으로 펼쳐지는 아스팔트 도로가 그대로 집안으로도 이어지고 아스팔트 풀이 짝터 있습니다. 조용하게 어둠에 동화되는 풀은 가나자와 거리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는 풀들입니다. 다카하시 하루키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이란 무엇일까 라고 물어 봅니다. 초록, 풀꽃 등 지금 자연이라고 느껴지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날의 생활을 지탱하는 길의 상징인 아스팔트도 사람과 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으로 느껴져 가는 것은 아닐까요. 가나자와에서의 낡은 상점가가 차례차례로 부서져 아스팔트의 주차장으로 변해가는 그런 현실에 대한 당황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이 밝게 비춰지는 것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만, 가나자와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림자와 같이, 희미한 빛 속에서 응시하면 보여지는 풍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변의 모든 것을 감각으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온갖 자연과의 대화가 그곳에 나타낼 수 있을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다카하시 하루키(高橋治樹)

1971년 가나자와에서 태어나 가나자와시 거주. 도쿄예술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취득. 대학 재학때부터 풍경과 사람의 관계를 테마로 제작을 계속해 1999년부터 도쿄에서 오사카, 런던에서 프랑스 등 도시에 있어 자신이 실제로 본 풍경을 영상으로 이어 가는 《Continuous Landscape》 프로젝트를 직접 제작. 2002년부터 제작 장소를 가나자와로 옮겨 구타니아키(九谷焼)의 꽃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퍼지면서, 그 꽃 속에 기억의 풍경이 펼쳐지는 《풍경의 사고 방식》 시리즈를 전개하고 있다. 현재 가나자와 미술 공예 대학 유화 전공 강사. 2009년 에치고 쓰마리(越後妻有) 아트 트리엔날레(Art Triennale)에 참가 예정.

6. 도모마사 마리코 《색종이 조각 온천》 《아버지와 식사》

《「색종이 조각 온천」》은 가족이 모여 색종이 조각을 자르면서, 가공의 온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든 작품입니다. 이번 가나자와에서는 8월부터 9월에 걸쳐 약 15가족이 색종이 조각과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 때 다른 가족이 만든 이야기를 들은 뒤에 만들었습니다만, 재미있는 것이 이야기의 구조가 유사하거나 비슷한 모티프가 등장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会場)이 되는 다카오카초(高岡町)의 독립주택에는 만들어진 색종이 조각을 사용한 「온천」의 예술적 공간(installation)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욕조와 같은 설비 안에 색종이 조각을 채워져 방문한 사람이 그 「욕조」에 잠기면서 각각의 가족이 만든 이야기를 비디오 모니터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식사》는 도모마사(友政) 자신이 딸을 연기하고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아버지를 연기해, 식사 동안만 부모와 자식으로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기록한 영상 작품입니다. 「부모란」 「자식이란」 이라고 하는 각각이 안고 있는 이미지가 대화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가나자와에서 약 10 명이 아버지를 연기했습니다. 「집」 이나 「가족」 이라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가나자와의 거리를 파악한 작품입니다.



《「カミラブキオンセン」》

도모마사 마리코(友政麻理子)

1981년, 사이타마현 태생. 도쿄 예술 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 재학중. 군마현 미나카미초 등에서 프로젝트를 실시. 가족을 테마로 작품 제작이나 워크숍을 실시. 「집」 이나 「가족」 이란 무엇인가를 되묻는다. 또한 요즘은 후지(富士) 신앙을 테마로 한 작품도 전개해 「가족」 이나 「신앙」 이라고 하는 사회에 존재하는 이야기 구조에 접근한다.

7. 야하타 아키 《미치코 교회》

《미치코 교회》는 산에 지은 간소한 오두막으로, 그것을 「교회」로서 영위하는 노녀를 파악한 약 30 분의 영상과 사진에 의한 작품입니다. 오두막을 지어 함께 생활해 온 남편을 여위고 산을 내려갈지 갈등하면서 사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작자는 픽션인가 다큐멘터리인가는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회나 종교 주변에 사는 사람의 순수함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에 가까운 히로사키(広坂) 상점가의 빈 빌딩에서 도큐멘트로써 전시. 사회의 주변으로 시선을 환기시켜 공공 공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입니다.



야하타 아키(八幡亜樹)

1985년 도쿄도 태생. 현재 도쿄 예술 대학 대학원 미술 연구과 석사과정 재학중의 젊은 영상 작가. 강변에 사는 피에로를 포착한 작품 등 현실과 허구를 넘은 일상, 또 거기에 있는 것/사람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면서 도큐멘트 스타일로 작품을 전개.

8. Kamin Lertchaiprasert 《31 세기 마음의 미술관》

Kamin Lertchaiprasert 의 흥미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그것을 지탱하는 가치관, 철학을 디렉트로 예술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나자와에서는 자신이 표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참가자를 모집한 공동 작업을 통해서 예술의 의미를 묻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것은 참가자 각각이 마음에 남는 물건들이나 자신의 보물을 가지고 모여, 그것을 미술관에 가정된 히로사키 상점가의 NTT 고린보 빌딩 4 층에 전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 광장을 사용하여 「31 세기 마음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사람 글자를 만듭니다. 이러한 시도는 현실 사회에 대한 조용한 반대와 이상의 발로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예술화」「생활과 예술의 일치」라고 하는 근대미술의 유토피아적인 발상과도 공통성을 가진다는 이러한 생각에는 Kamin Lertchaiprasert 의 공상, 꿈, 이상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얼핏보면 공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역사적인 예술, 혹은 프로페셔널 예술 작품에 대한 반대론으로써의 의미를 가집니다.



(C)Kamin Lertchaiprasert

Kamin Lertchaiprasert

Kamin Lertchaiprasert 타이 북부의 도시 Chiang Mai 를 활동 거점으로 참가형, 프로세스 중시형의 제작 활동을 하고 있다. Rirkrit Tiravanija 와 공동으로 시작한 《the land》 프로젝트는 자립한 커뮤니티를 위한 해방된 장소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라이프 워크 라고도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불교 사상을 기본으로 실험적인 사색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탐구가 행해져 유기 농업, 건축, 미술전, 강연 등 외에 명상법이나 요가 교실이 열리고 있다.

9. 마루야마 준코 《공중 꽃길》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투를 사용해 꽃을 만드는 워크숍을 실시해 상점가를 장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신변의 소재를 사용하여 정성스럽게 손을 움직여 꽃을 만든다고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정신의 안정을 가져오고, 워크숍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 끼리 서로서로를 알게 됩니다. 마루야마(丸山)는 7월부터 8월에 걸쳐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투를 사용해 꽃을 만드는 워크숍을 치매 노인을 위한 그룹 홈, 노인 지역 복지 지원 센터, 정신과 병원, 공민관 등에서 총 19 회 실시했습니다. 총 300 명의 참가자와 만든 꽃 1,000 송이, 니이가타와 요코하마, 오스트레일리아의 Perth 등의 과거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꽃 6,000 송이를 전람회 기간중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으로부터 도보 5 분거리인 다테마치(豎町) 스트리트 전체 길이 450 미터에 가득하게 전개합니다



タテマチ ストリートでの展示イメージ

마루야마 준코(丸山純子)

1976 년 아마다시현 태생. 뉴욕 시립 대학 Hunter College 미술 학과졸업. 「에치고 쓰마리(越後妻有) 아트 트리엔날레(Art Triennale) 2006」 등의 국제전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그룹전 「Field of Ideas」 등에 참가. 신변에서 간과할 것 같은 소재가 가지는 위화감을 감지해, 손질하여 수집하는 것에 의해 의미를 변화시킨다. 친밀한 공동 작업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예술적 공간(installation)에 의한 장을 바꾸는 작품을 전개.

10. 우시지마 히토시 《굴러가는 저편의 구슬, 굴러가는 구슬의 저편》 11/11(화) ~

우시지마 히토시가 생각한 스토리에 의하면 직경 약 200 cm 구슬이 거리의 어딘가에, 어딘가에서 부터 나타나 「뛰어나게 경치가 좋은 곳이나, 모두가 있고 있었던 장소에도」 굴러가 어느 날, 딱 멈춘 그 자리에서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구슬안에는 골판지, 끈, 나무, 대나무가 들어 있고, 멈춘 그 자리에 사람이 모여 생각했을 때 문득 자신들의 기지를 만들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기지는 어떻게 좋을대로 만들면 되고 「이렇게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다」 가 유일한 기준이 되겠지요. 이 경우의 기지란 특별히 적과 아군으로 나누어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장소가 아니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동료 이외에는 비밀로 하고 있는 놀이터입니다. 보통 기지에 있는 동료는, 서로 서로 협력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기지로부터 나와야 하고, 쾌적하고 즐거운 공간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로부터 누군가와 함께 만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임과 동시에, 동료와 그 이위를 떼어내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게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시지마 히토시(牛嶋 均)

1963 년 후쿠오카현에 태어나 구루메시(久留米市) 거주. 80 년대는 다니카민 (田中泯) 이 주재 하고 있던 「무용교실」 에 소속. 신체 퍼포머로서 유럽을 돌고 귀국. 그 후 기업인 놀이 도구 제작소를 도우면서, 스스로 놀이 도구를 조각이라고 부르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11. KOSUGE1-16 《AC-21》 《쿵덕덕! 거대 종이 스모 ~가나자와 바쇼(場所)~》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의 장기 INSTALLATION ROOM 에서는 테이블상에서 즐기는 축구 보드게임을 거대화 한 《AC-21》 으로 놀 수 있습니다. 제목인 「AC」 은 「애슬래틱·클럽」 의 머리 글자입니다. 지역 스포츠 클럽과 같은 장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작품입니다. 와서 놀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선수의 인형은 가공의 「FC.마루비」 나 현지 축구 클럽 「FC. TON」 의 미래의 유니폼을 이미지 하여 가나자와의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칠한 것입니다. 또한 스타디움 자체도 어린이와 어른이 협력해 조립했습니다. 《쿵덕덕! 거대 종이 스모》 는 사람 크기와 같은 종이 스모를 골판지로 만들어 대회를 실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전람회 기간중 어린이들과 공민관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스모선수(力士)를 만듭니다. 만든 스모선수의 별명을 생각하기도 하고 깃발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지역의 상점가등과 협력해 중앙 시민 체육관에서 가나자와의 우승 스모선수를 정하는 대회를 실시합니다.



《AC-21》

KOSUGE1-16

구루마다 치시노(車田 智志乃), 쓰치야 다카시(土谷亨)의 2인조 아티스트 유닛으로서 2001년부터 활동을 개시. 쓰치야(土谷)는 1977년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나 다마미술대학 회화와 유화 전공 졸업. 구루마다(車田)는 1977년 후쿠시마현 태생. 아트가 신변의 장소에서 생활을 풍부하게 해 주는 존재로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포츠 등 일상에 있어 흔해 빠진 환경, 사람의 인연에 주목해 관객에게 참가를 촉구하여 참가자끼리 혹은 작품과 참가자 간에 「상부상조」의 관계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든다.

12. 도치카 《반짝 반짝 프로젝트 가나자와 2008》

《반짝 반짝》은 펜 라이트로 공중에 그림을 그려 셔터를 개방해 비춰진 빛의 궤적 사진을 이은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도치카가 느낀 가나자와라고 하는 거리의 인상 —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 들여 현충 더 궁리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지는 모습으로 가공하면서 재생시키고 있다 — 을 소중히 여기며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워크숍을 실시해, 약 25,000매의 사진을 편집해 이은 하나의 애니메이션 작품 《반짝 반짝 가나자와 2008》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른바 「가나자와다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배경으로 도깨비가 거리를 돌아다닌다(라고 해도 다리는 없이)라고 하는 《반짝 반짝》에 의해 가나자와를 걷는 것과 같은 작품입니다. 거리의 외향적인 표정의 으뜸을 히가시 차야카이(東茶屋街)에서의 로케라고 한다면, 생활을 소중히 하는 내적인 표정은 도깨비가 된 야구 소년들이 평소의 연습 그라운드에서 그린 도깨비 야구의 씬이라고나 할까요. 본 편에 등장하는 한 개 한 개의 빛의 궤적이 관련된 사람들의 시간의 길이와 깊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PIKA PIKA in KANAZAWA2008》 ©TOCHIKA

TOTIKA

나기타 다케시와 몬노카즈에(모두 1978년생, 나라현 거주)를 중심으로 한 크리에이티브·유닛. 영상 작품 《반짝 반짝》으로 2006년에 오타와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특별상,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특별상을 계속해 수상. 2008년에는 쿠레르몬페란 국제 단편 영화제 Labo 부문에서 그랑프리 수상하는 등 워크숍을 바탕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영상이 성립한다고 하는 점에선 《반짝 반짝》은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도 할 수 있는 작품이다.

13. 후지에다 마모루 《Aeolian Harp Resounding ~수목을 잇는 소리~》

지금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이 있는 장소에는 일찌기 가나자와 대학 부속 초중학교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건물 둘레에 있던 수목은 지금도 미술관을 둘러싸듯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에 학생들의 추억이 축적되고 그리고 미술관을 지켜주는 나무가 되고, 또한 새로운 기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각각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목도 지하에서는 같은 수맥안에 있으며, 같은 대기의 아래에서 살아 있습니다.

수목에 뺨 둘러쳐진 Aeolian Harp 의 현에 의해 나무들을 스치는 대기의 호흡은 음향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이 때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이기도 하고, 많은 기억을 품은 고대로부터의 음향이기도 합니다. 수목들은 고대의 바람의 신의 화신이기도 한 Aeolian Harp 의 현에 바람을 받아 한층 더 같은가락의 음향이 되어 엮어 겹쳐 갑니다.

그 음향은 미술관 유리 벽을 진동시켜, 미술관 전체 속으로 조용하게 속삭이듯 울려 퍼집니다. 미술관이 생겨 수목들이 연주하는 소리는 학생들이 들은 음향과는 다를 수 있지만, 쌓이고 쌓인 기억은 지금의 음향 속에 확실히 융화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귀를 기울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목을 잇는 소리가 여기서 길러진 기억 속으로 유혹해 주겠지요.



후지에다 마모루 (藤枝 守)

작곡가.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고 음악학부 박사 과정 수료. Ph.D.취득. 순정조 등의 음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또한 식물의 전위 변화에 근거한 《식물 문양》이라고 하는 작곡 시리즈를 전개. 최근의 CD 에 《클라비 코드와 식물 문양》(MAM-001)이나 《Patterns of Plants II》(TZADIK-8061)가 있다. 또 저작에는 「음향의 생태계」(필름 아트사) 「증보 음향의 고고학」(平凡社 도서관)이 있다. 현재 규슈 대학 대학원 예술 공학 연구원 교수

14. 나카무라 마사토 《Z 프로젝트》

아티스트의 자립이나 지역의 문화 활동을 서포트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겐로쿠엔(兼六園) 대로에 접해 있는 빈 빌딩을 아트 센터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나카무라가 「Z 의 가치(절망적이고 한계인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는 사상)」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점, 방법, 에너지를 창출하여 Z 를 이겨내는 희망이나 용기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빌딩 2 층에서는 기획전시와 작품의 렌탈 시스템을, 대로에 접해 있는 1 층에서는 카페, 숍, 라이브나 토크 이벤트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가까운 부지에 초기 조립 주택 유닛인 「MI」을 설치 고급주택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아키타, 오키나와, 히미, 미토 등 지방도시를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현지 상가주, 현지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가나자와 대학이나 가나자와 미술 공예 대학, 가나자와공업 대학의 학생, 자원봉사자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람회 종료 후에도 임의 단체로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마사토 (中村 政人)

1997 년부터 비영리 예술 활동 「Artist Initiative Command N」을 주재하여 글로벌과 로컬을 묶는 아티스트 교류 프로그램 「POWWOW」을 36 회 개최. 또한 국제 비디오 아트전 「아키하바라 TV」등 시민, 학생, 상점 조합, 민간기업, 대사관, 지자체 등을 묶는 새로운 사회 참가형 아트 프로젝트를 약 30 회 기획, 제작, 실현. 아트를 사회 활동이라고 자리 매김 해 일찍부터 아트에 의한 커뮤니티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는 아트 프로듀서적인 존재. 나카무라의 사회와 미술에 관련되는 제도론은 인터뷰집 「렌탈 갤러리」(1994 년), 「미술과 교육 1997」, 「미술과 교육 1999」이라고 하는 일련의 출판 활동에 나타나고 있다.

15. Atelier Bow-Wow 《생기 넘치는 상가 프로젝트》

요코야마초(横山町)에 빈집으로서 남아 있는 건축된지 120 년의 상가(에도시대의 상인의 주택겸 점포)를 보수해 재생 활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작년의 《생생 프로젝트》에서 실시한 상가 조사를 근거로 약 10 채의 빈상가를 둘러 본 다음 요코야마초의 상가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신진 건축가, 가나자와공업 대학가나자와 미술 공예 대학의 학생, 상가 보존 재생을 목표로 하는 NPO, 직업 대학교를 졸업한 직공 등과 협동하면서 8 월부터 9 월에 걸쳐 대청소, 실측 조사와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도로에 면해있는 증축 부분을 철거해 격자를 재현하여 도로로부터 내부로의 연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람회의 회기중에는 작품 전시나 체험 숙박 등을 행하는 열린 장소로서 활용합니다.



Atelier Bow-Wow

쓰카모토 요시하루(塚本由晴), 가이지마 모모요(貝島桃代)의 2 인조 건축가 유닛으로서 1992 년부터 활동. 건축의 설계나 워크숍을 실시한다. 쓰카모토(塚本)는 1965 년 가나자와현 태생. 도쿄 공업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동 대학 대학원 준교수. 가이지마(貝島)는 1969 년 도쿄도 태생. 도쿄 공업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쓰쿠바대학 강사. 베네치아비엔날레, 상파울로비엔날레 등 10 개소 이상의 미술 국제전에 참가. 작년 4 월부터 9 월까지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에서 《생생 프로젝트 in 가나자와》를 실시.

16. 시오타 치하루 《His Chair》

이 작품은 시오타 치하루가 구 동베를린에서 해체되거나 개축된 건물의 창을 모아 그 창만으로 만든 것입니다. 2005 년 덴마크에서 행해진 전람회에서 발표된 작품에 가까운 포름입니다만, 당시 《His Chair》로 여겨진 「그」란 전람회의 테마였던 안데르센이었던데 대하여, 지금의 「그」란 이전에 거기에 있던 누군가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89 년 독일을 동서로 분단 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사람들은 베를린이라고 하는 거리로 와야 할 21 세기로의 희망을 내걸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건물의 개축이나 재건축이 계속 되고 있는 혼돈된 거리 구 동베를린에 사는 시오타는 이 창을 통해 떨어진 서쪽을 응시하고 있었을 인간과 창 의 기억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 동베를린에서 2002 년경 부터 오직 혼자서 하루에 20 채 이상의 건물이나 공사 현장을 돌면서 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때는 「창에 혼을 빼앗겼다」고 할 정도로 수집에 빠져, 2006 년까지 1,000 개 이상의 창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창 의 한개 한개에는 시대의 공기나 사람들의 생활이 배어들어 이전에 있었던 누군가의 존재를, 지금은 더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재에 의해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His Chair》 ©Sunhi Mang

시오타 치하루(塩田千春)

1972 년 오사카부에서 태어나고 베를린 거주. 1996 년에 Hamburg 대학에 유학한 이래, 독일에 거점을 두고 마리나아브라모비치와 레백카호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스스로의 내면에 넘쳐나는 해소할 수 없는 감정이나 감각을, installations, 드로잉, 혹은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창을 사용한 작품은 2004 년 제 1 회 세비야 비엔날레에서 발표한 이후, 때로는 미로같거나 집 같거나 하는 형태로 바뀌고는 있지만, 어느것이나 다른 기억을 가진 창이라고 하는 개개의 집적어, 죽은 사람이나 지난 것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17. 아오키 치에 《BODY 08 - 1》 《BODY 08 - 2》

큰 칠흑같은 덩어리와 그것을 지탱하는 리얼한 하반신이라고 하는 그 포름에 우선은 매혹 당하지만, 이윽고 칠흑같은 어둠안에 응축되어 자기의 내면에 감춰졌던 불안이나 공포라고 하는 안좋은 감정이 견고한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것에 우리는 희한하게 안심감을 품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신체면서 누구에게도 공통되게 품고 있던 생각이 덩어리로 흘러넘칠 것 같으면서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실로 생생하고, 그것을 지탱하는 간신히 지면으로부터 떠 있는 다리에는 근거 없는 고독이나 불안이 느껴집니다. 작품의 장소가 되는 신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구원을 비는 장소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기원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칠흑같은 덩어리가 하늘로 뚫고 나가고 있는 모습은 자신의 껍질을 깨고 싶다고 하는 강력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도 보여 집니다. 사람과 사람, 신과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창출하는 자리속에 칠흑같은 어둠을 품으면서도 그런데도 씩씩하게 살아 있는 인간의 고귀함이나 아름다움이 보다 한층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지요.



《BODY 07-2》

아오키 치에 (青木 千絵)

1981년 기후현 태생. 2005 가나자와 공예 대학 공예과 졸업, 일본 칠공예 장학상 수상. 대학에서 옷을 접하고 옷이 가진 광택으로부터 창조를 불러 일으켜 인간의 존재를 중첩한 작품 제작을 시작한다. 갤러리테(도쿄·쿄바시)의 개인전(2006, 2007), 「TAMA VIVANT2006」(도쿄·요코하마) 등 전람회의 출품도 많고 인체와 추상 형태가 융합한 독특한 포름의 작품에 대한 평가가 높다. 현재 가나자와 미술 공예 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 재학중.

18. 다카하시 교타 《꿈의 씨앗 프로젝트 2008》

「응, 너의 꿈은 뭐니?」 다카하시 교타의 라이프 워크 《꿈의 씨앗 프로젝트 2008》이 가나자와에서 시작됩니다. 《꿈의 씨앗 프로젝트》란 씨앗 형태의 오려낸 반투명의 종이에 워크숍에 참가한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꿈을 써서 소형의 LED 라이트를 끼웁니다. 이것을 맡았다가 12월 6일(예정의 밤에 상공에서 흩뿌려, 모두에게 하나씩 누군가의 꿈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나 꿈을 가지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있어, 여전히 이 물음을 다카하시가 계속 하는 것은 꿈을 생각할 때는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누군가의 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자신 이외의 사람을 상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나의 꿈에는 한사람의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꿈의 씨앗 프로젝트》는 누군가의 꿈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자고 하는 많은 서포터들이 직접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들이 만드는 것이 《꿈의 씨앗》 플랫폼입니다. 거기를 거점으로 사람들이 왕래하고, 꿈이 모이고, 또 다시 흩날려 갑니다. 식물의 씨앗이 그렇듯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이윽고 낫선 대지를 만나더라도 튼튼하게 싹을 터서 크게 성장하듯이, 모두가 하나 하나의 꿈을 소중히 전하자고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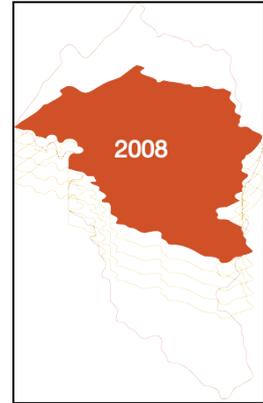
《夢のたね》撮影:市川靖史

다카하시 교타(高橋匡太)

1970년 교토부에서 태어나 교토부 거주. 영상이나 조명을 교묘하게 조종한 에지가 선 사프한 작품이 매력적이다. 교토·니조성을 비롯해 옥내외에서의 대규모 라이팅 프로젝트를 다루어 오고 있다. 최신작은 《형형색색의 파편》(도와다시 현대 미술관). 《꿈의 씨앗》은 후쿠이현 아와라시에서 멜버른을 거쳐 이미 10만명 이상이 참가해 온 대형 프로젝트이다.

19. 미야타 히토시 《모두의 추억》

미야타 히토시는 웹상에서 작품을 전개합니다. 참가자는, iPhone 와 PC 로부터, iPhone3G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그의 작품에 액세스. 거기에는 시계열 층으로 나누어진 가나자와시의 디지털 백지도가 준비되어 자신이 있는 장소에 간단한 조작으로 각각의 기억을 사진이나 말로써 매핑합니다. 사람의 기억이나 마음의 기억이 시각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지금」은 「과거」로 아카이브 (archive) 되어 갑니다. 일찌기 같은 장소에서 무엇이 있었는가. 살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 여행으로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 같은 장소에 추억이 있는 사람끼리 그 지도 정보를 공유해 연결하여 여러가지 요소가 더해져 갑니다. 이 작품은 참가자의 손으로 조금씩 변화해 갑니다. 각각의 「추억」이 맵상에 넘쳐 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내 갑니다. 이 작품은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이 작품으로 시도 된 것은 향후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서 이용되어 갈 가능성을 감추고 있습니다.



©2008hitoshi miyata

미야타 히토시 (宮田 人司)

크리에이티브·디렉터. 타이·방콕 태생. 뮤지션으로서 활동하고 멀티미디어 작품 제작에도 종사한다. 후에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를 컨셉으로 창업해 ISP 사업 및 콘텐츠 기획 제작을 다룬 넷 게임이나 착신 멜로디를 비롯한 수많은 콘텐츠를 세상에 발표. 그래픽 디자인이나 Photographic, CG 애니메이션 감독등도 해내는 크리에이터.